Daishin 증권

2026년 04월 8일 수요일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지정학 리스크에 흔들린 증시, 삼성전자 실적은 회복탄력의 근거

- 이란발 지정학 리스크가 시장 흐름 주도
-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지정학 리스크 완화/해소시 회복탄력 강화
- 주요 업종: 2차전지, 친환경 에너지, 소비재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Global Strategy

Post-Tariff EM, 공급망 재편과 China+N 전략

- 3.27일 中 상무부 조사, 4.2일 美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미중 관세 분쟁 재개. 전쟁 충격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관세 이슈가 전면에 부각
- 공급망 재편과 제조업 업황 회복 수혜가 기대되는 China + N: 중국, 인도, 베트남, 멕시코, 브라질 공급망 분석과 재편 수혜
- 중국 중심으로 재편 수혜국을 시기별로 편입하는 포트폴리오 전략 제시

문건우. gunwoo.moon@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1Q26 Preview] CJ ENM: 광고가 아쉽다

- 1Q26 매출 1.1조원(-0% yoy), OP 290억원(+4,017% yoy) 전망
- 티빙, Fifth Season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사 이익 개선 전망
- TV 광고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미디어플랫폼 실적 추정은 하향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Industry Report] PCB: 폴더블폰, AI 수혜 찾기

- 2026년 2Q, 최선호주 비에이치 / 차선호주 삼성전기 제시
- 비에이치: 휴머노이드향 진출 / 삼성전기 : FC BGA의 가격 인상
- FC BGA는 AI 서버향 수요 강세, 공급부족으로 공급단가 인상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Company Report] 삼성전기: 2026 년 FC BGA, MLCC 가격이 상승

- FC BGA는 AI 서버 및 데이터 센터향 매출 확대, 가격 인상 추진
- ASIC 고객으로 수주 증가, 2027년 수요 증가대비 공급 부족 예상
- FC BGA 및 MLCC에서 가격 인상을 추진, 추가 이익 상향 예상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Company Report] 비에이치: 폴더블폰, 피지컬 AI !

- 애플의 폴더블폰 출시 예정, 신규 매출 추가로 최고 실적 예상
- 신성장으로 휴머노이드 및 로봇 분야에 진출, 글로벌 협력 강화
- 최고의 실적 및 신성장 모멘텀 추가 = 밸류에이션 재평가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1Q26 잠정실적] LG 전자: 1Q 예상 상회! 달라진 체력을 확인!

- 1Q26 영업이익은 1.67조원(33% yoy)으로 컨센서스대비 21% 증가
- MS 및 VS 부문에서 수익성 확대, 고부가 중심의 매출 확대
- 밸류에이션의 저평가 지속, 로봇과 AI향 공조 사업 확대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1Q26 잠정실적] 삼성전자: Memory Giant

- 1Q26 영업이익은 57.2조원으로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
- 시장은 삼성전자의 폭발적 이익 성장을 지속 체감하게 될 것.
- 메모리반도체 초호황에 대한 재평가 필요. 적극적 매수 전략 유효.

류형근. kangho.park@daishin.com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지정학 리스크에 흔들린 증시, 삼성전자 실적은 회복탄력의 근거

- 이란발 지정학 리스크가 시장 흐름 주도
-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지정학 리스크 완화/해소시 회복탄력 강화
- 주요 업종: 2차전지, 친환경 에너지, 소비재

이란발 지정학 리스크가 시장 흐름 주도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공격 시점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이란은 휴전 제안을 거부한 채 완전한 종전, 호르무즈 해협 통행 관련 협약, 제재 해제 등을 요구. 협상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이란 간 입장 차가 여전히 커 휴전 기대는 약화. 잔존한 지정학 리스크가 시장의 하방압력으로 작용

미국은 아칸소 주방위군 제142야전포병여단 소속 병력 130명을 남서아시아에 파병. 이란 사태에서 군사적 행동 지속되는 점도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부정적 요인

다만, 주파키스탄 이란 대사가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으로 협상이 중대하고 민감한 국면에 진입했다고 언급.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로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6.0%), 한화시스템(+3.2%), LIG넥스원(+2.1%)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지정학 리스크 완화/해소시 회복탄력 강화

삼성전자는 1분기 잠정실적으로 매출 133조원(YoY +68%), 영업이익 57조원(YoY +755%)을 발표하며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 AI 산업 확장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수요 확대와 제한적인 공급 여건이 맞물리며 메모리 가격이 급등한 상황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삼성전자는 202,000원에 시가를 형성했으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이 부각되어 하락한 후 재차 반등하며 마감

금일 삼성전자 주가 등락은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단기 변동성이라고 판단. 삼성전자의 실적 서프라이즈와 한국의 3월 수출 호조는 실적 기대를 높이며, 견조한 펀더멘털을 확인할 수 있는 요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해소된다면 이익 추정치 상향과 함께 회복탄력 강화될 가능성 높음

반도체: 삼성전자(+1.8%), SK하이닉스(+3.4%), 이수페타시스(+1.2%)

주요 업종: 2차전지, 친환경 에너지, 소비재

에너지 우려 확대된 상황 속 ESS 모멘텀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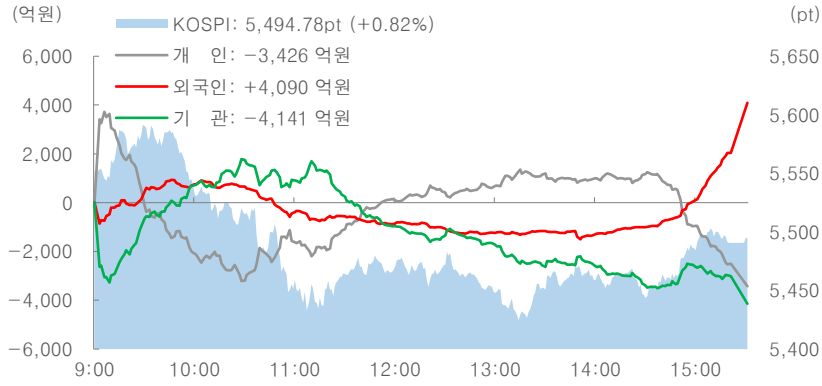
2차전지: 엘앤에프(+8.4%), 에코프로머티(+6.1%), 삼성SDI(+0.7%)

기관 투자자 순매도 속 차익실현 매물 출회

친환경 에너지: 씨에스윈드(-10.6%), OCI홀딩스(-7.7%), 한화솔루션(-2.6%)

소비재: 에이피알(-5.4%), 코스맥스(-3.4%), 아모레퍼시픽(-2.7%)

KOSPI 투자주체별 수금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Global Strategy

Post-Tariff EM, 공급망 재편과 China+N 전략

EM Strategist 문건우
Gunwoo.moon@daishin.com

- 3.27일 中 상무부 조사, 4.2일 美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미중 관세 분쟁 재개
- 국가별 공급망 분석, 중국, 인도, 베트남, 멕시코, 브라질 공급망 재편 수혜
- 중국 중심으로 재편 수혜국을 시기별로 편입하는 포트폴리오 전략 제시

전쟁 충격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관세 이슈가 재차 전면에 부각될 것. 관세의 본질은 공급망 재편

관세 이슈가 돌아온다. 3월 27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공급망 교란과 녹색 무역 방해 조치에 대한 무역 장벽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및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시장의 관심은 미국-이란 전쟁에 집중되어 있으나, 관세 갈등은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장기 의제다. 결국 미국과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고, 전쟁의 충격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관세 이슈가 재차 전면에 부각될 것이다. 관세 체제의 본질은 공급망 재편에 있다. 2월 20일 IEEPA 기반 상호 관세 위헌 판결로 보편 관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앞으로의 관세 체제는 더 정교하게 타겟팅 되고 법적으로 견고하게 재편될 것이다.

공급망 재편과 제조업 업황 회복 수혜가 기대되는 China + N, 국가별 공급망 분석

지금은 공급망 재편 수혜국을 선별해야 한다. 관세 체계가 보편 관세에서 품목별·국가별 정밀 타겟팅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수혜 강도도 제조업 단계, 교역 구조, 정책 대응, 밸류에이션에 따라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중국은 양회에서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 중심의 산업 구조 고도화와 내수 중심 경제 전환을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인도는 비동맹 외교와 국가 주도 제조업 육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베트남은 공급망 재편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로, 프런티어에서 신흥 권역으로 진입하며 제조업 고성장이 기대된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USMCA를 바탕으로 니어쇼어링의 구조적 성장이 지속됐다.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기대되는 국면에서는 브라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흥국 투자 포트폴리오, Core EM 중심으로 Satellite EM을 선별. 시기별 편입 시점

공급망 재편 국면의 신흥국 투자는 이전과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어느 국가가 유리한가'라는 단순 질문보다, 어떤 국가를 중심축(Core)과 위성축(Satellite)으로 나눌 것인지, 선별한 국가를 언제 편입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다. 공급망 분석 결과 'China+N', 즉 중국을 중심에 두고 재편 수혜국을 시기별로 배치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한다. 1) 4~5월 미국-이란 휴전 협상 국면에서 지정학적 우려로 증시 하락폭이 컸던 인도와 베트남을 우선 편입하고, 2) 7월 USMCA 재검토 결과 확인 후 멕시코, 3) 9월 FTSE 신흥 권역 편입에 따른 패시브 수급 시 베트남, 4) 10월 대통령 선거 전후로 경기 부양책과 원자재 사이클이 맞물리는 브라질을 편입하는 전략이다. 역사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지정학적 이슈가 글로벌 교역이라는 핵심 펀더멘털을 훼손한 사례는 없었다. 전쟁 이전에 이미 확인된 글로벌 제조업 PMI 회복, 주요국 실물지표 개선, 낮아진 밸류에이션은 선별적 비중 확대의 근거가 된다. 변동성이 확대된 지금이 오히려 공급망 재편 수혜국을 선점하기에 유효한 시점이다.

Earnings Preview

CJ ENM (035760)

광고가 아쉽다

- 1Q26 매출 1.1조원(-0% yoy), OP 290억원(+4,017% yoy) 전망
- 티빙, Fifth Season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사 이익 개선 전망
- TV 광고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미디어플랫폼 실적 추정은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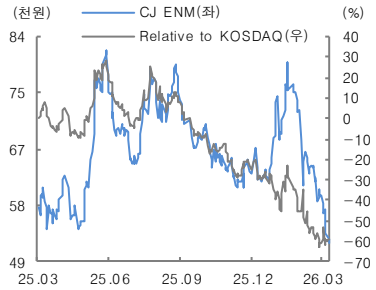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85,000 하향
현재주가 (26.04.07)	52,000
	미디어업종

KOSDAQ	1036.73
시가총액	1,14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4%
자본금(보통주)	11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81,800원 / 52,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6억원
외국인지분율	17.02%
주요주주	CJ 외 8 인 42.8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1.2	-16.1	-26.0	-11.1
상대수익률	-12.2	-23.4	-39.1	-44.2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85,000원으로 -10% 하향

12M FWD EPS 4,061원에 PER 21배(합병 전 평균) 적용
TV 광고 회복 지연을 반영하여 26년과 27년 OP 각각 -9%, -6% 하향 조정
합병 전 합산 OP 2.5천억원 수준에 근접하면서 타겟 멀티플은 21배 적용

1Q26 Preview: TV 광고는 부진. 적자 자회사는 실적 개선

매출 1.1조원(-0% yoy, -21% qoq), OP 290억원(+4,017% y, -66% q) 전망

미디어플랫폼 -28억원(적지 / +29억원 yoy). 음악 32억원(+19% / +5억원 yoy)
커머스 263억원(+2% / +4억원 yoy). 영화/드라마 34억원(흑전 / +266억원 yoy)

미디어플랫폼 중. 티빙 -128억원(적지 / +129억원 yoy)
영화/드라마 중. Fifth Season 30억원(흑전 / +203억원 yoy)

적자 자회사인 티빙과 Fifth Season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사 이익 개선 전망
직전 추정 대비 실적 추정 하향은 TV 광고의 회복 지연에 기인

[미디어플랫폼] 시청률은 견조한 반면, TV 광고 회복은 지연

TV 광고는 20년 5.1천억원 대비 25년 2.8천억원으로 -49% 하락
견조한 시청률을 기반으로 TV 광고의 반등을 예상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를 선반영하여 TV 광고의 부진 지속
26년 TV 광고 성장률 추정을 +7% yoy에서 +2.8% yoy로 하향
1Q26 TV 광고 -11.7% yoy 전망

tvn 평균 시청률. 1Q25 3.0%, 2Q25 5.9%, 3Q25 8.9%, 4Q25 7.5%, 1Q26 7.3%

[티빙]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 높아진 티빙-웨이브 합병 가능성

가입자 460만명(+70만명 yoy, +10만명 qoq) 추정. 배민 제휴, AVOD, 통신사 제휴 확대, SSG 및 롯데 등 제휴 확대. WBC 중계권과 티빙-tvN 동시방영 작품의 상각비 반영되면서 비용도 동반 상승. 1Q OP -128억원(적지 / +129억원 yoy)

25년 OP -696억원(+14억원 yoy), 26E OP -225억원(+471억원 yoy)

[Fifth Season] TV 시리즈 3편 공급. 2Q26 이후 작품은 아직 미정

25년 OP -56억원(+464억원 yoy), 26E OP 150억원(+206억원)
26년 TV 시리즈 7편 공급 추정하나, 연내 미확정시 실적 추정 하향 가능성

(단위: 십억원, %)

구분	1Q25	4Q25	1Q26(F)					2Q26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138	1,438	1,179	1,137	-0.1	-20.9	1,209	1,267	-3.5	11.4
영업이익	1	86	46	29	4,016.6	-66.3	31	39	34.8	33.0
순이익	-62	-80	22	9	흑전	흑전	8	12	-90.3	31.0

자료: CJ ENM,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PCB

폴더블폰, AI 수혜 찾기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서지원RA jiwon0.seo@daishin.com

투자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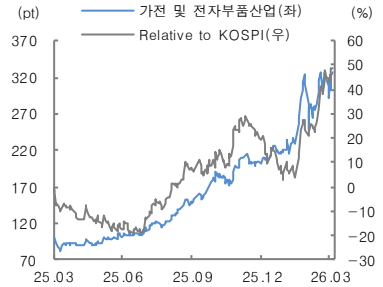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비에이치	Buy	35,000원
삼성전기	Buy	550,000원
LG이노텍	Buy	420,000원
대덕전자	Buy	95,000원
심텍	Buy	60,000원
코리아써키트	Buy	82,000원
티엘비	Buy	70,000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2	8.7	-5.8	-8.3
상대수익률	2.0	5.5	-9.5	-7.3



- 2026년 2Q, 최선호주 비에이치 / 차선호주 삼성전기 제시
- 비에이치: 휴머노이드향 진출 / 삼성전기: FC BGA의 가격 인상
- FC BGA는 AI 서버향 수요 강세, 공급부족으로 공급단가 인상

최선호주 비에이치 / 차선호주 삼성전기

2026년 2Q, 반도체 패키지 중심의 주가 상승이 연성PCB 분야로 확산될 전망. 현 시점에서 비에이치를 최선호주로 제시. ① 애플의 신모델인 폴더블폰 출시, 2026년 9월에 아이폰 폴드 형태로 추정. 기존의 바(Bar) 형태 대비 디스플레이의 대면적(2개 연결)을 감안하면 신규로 수량(Q) 및 가격(P)이 동시에 상승 ② 2026년 하반기 추가 매출은 약 3천억원으로 추정, 2026년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5.5%(yoy), 39%(yoy)씩 증가로 예상, 3차 성장 구간에 진입 ③ 애플 아이폰 모델의 출시 전략 변화로 상반기 / 하반기에 생산모델 슬림화 및 집중화로 추가적인 수율 개선 예상 ④ 신성장으로 피지컬 AI 사업에 진출, 차량용 충전기 사업에서 휴머노이드(로봇 등)로 진출 및 확대하여 2027년 신규 매출 예상. 그리고 R/F PCB를 글로벌 휴머노이드 제조업체에 공급 추진 등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진행 전망

AI 서버향 FC BGA : 이비덴과 삼성전기가 양분, 공급단가 상승으로 2026년 이익 확대 예상

2026년 반도체 PCB는 서버향 출하량 증가 속에 가격 인상이 고객으로부터 용인되면서 추가적인 이익 개선이 2026년 2Q 이후에 진행될 전망. 삼성전기가 최대 수혜를 예상. FC BGA는 글로벌 수요 강세 및 공급능력의 한계로 소수 업체에게 수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확대의 제한성을 반영하면 공급 가격이 인상, FC BGA 업체의 추가적인 이익 개선으로 연결. FC BGA의 수요 확대는 HBM수요 증가에서 촉발, 일본의 이비덴과 신코가 경쟁 우위를 확보. 또한 2025년 ASIC 업체의 자체 칩 생산 비중이 증가하면서 2026년 삼성전기에 수주가 집중되는 구조 등 양분화가 진행. 수익성 좋은 서버 및 AI 칩 부문의 FC BGA 공급은 일본과 삼성전기가 주력으로 담당. 신규로 진출한 LG이노텍과 대덕전자는 추가적인 공급 업체의 확대 과정에서 추가 수혜, 매출 증가가 예상

서버향 메모리 모듈은 평균공급단가(ASP) 상승, 소캠 2 개화로 수익성 확대의 수혜를 예상

반도체향 메모리 모듈은 2026년 서버향의 대면적화, 고다층화가 지속되면서 평균공급단가(ASP) 상승이 지속 중. 수량(Q)과 가격(P)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2026년 최고의 실적을 예상. 추가로 엔비디아의 소캠2 양산이 2026년 2Q 진행,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2027년 소캠2 시장이 확대 예상. 국내 메모리모듈 사업을 영위한 심텍, 티엘비, 코리아써키트가 수혜 예상

삼성전기 (00915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서지원RA jwon0.seo@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550,000
유지

현재주가 462,000
(26.04.06)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5450.33
시가총액	35,01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05%
자본금(보통주)	373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79,500원 / 109,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110억원
외국인지분율	38.98%
주요주주	삼성전자 외 4 인 23.79% 국민연금공단 10.5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4.2	72.4	136.0	281.2
상대수익률	17.0	43.1	53.7	72.4

기업분석

2026년 FC BGA, MLCC 가격이 상승

- FC BGA는 AI 서버 및 데이터 센터향 매출 확대, 가격 인상 추진
- ASIC 고객으로 수주 증가, 2027년 수요 증가대비 공급 부족 예상
- FC BGA 및 MLCC에서 가격 인상을 추진, 추가 이익 상향 예상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550,000원 유지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550,000원을 유지. 2026년 FC BGA 포함한 패키지솔루션 부문의 매출은 1.68조원으로 44%(yoy) 증가, 전체 외형 성장(12.4% yoy)을 상회 및 최고 실적을 예상. 배경은 데이터센터 및 AI향 FC BGA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 FC BGA 매출 비중이 전체 기판 중 60%로 확대 등 신성장 역할을 담당. 매출 증가 속에 고부가 비중 확대가 전체 수익성 호조를 견인

2026년 4Q에 FC BGA 가동률이 95%~100% 근접, 2027년 믹스 효과가 극대화 전망. 2026년 하반기 가격 인상 및 고부가 중심으로 믹스 효과, 수율 개선이 추가되면서 2027년 수익성 호조가 지속 전망. 글로벌 ASIC 및 HBM 등 다수의 고객 및 수주를 확보, 데이터센터 및 AI향 FC BGA 매출이 증가, 전체 이익을 견인

2026년 영업이익은 1.41조원으로 54.5%(yoy) 증가 추정

2026년 1Q 실적보다 2Q 이후에 FC BGA와 MLCC에서 평균공급단가 상향으로 추가적인 이익 상향에 주목, 2026년 매출(12.7조원)은 역대 최고, 영업이익(1.41조원)은 2022년 이후에 최고를 예상. 밸류에이션의 재평가 관점에서 비중확대 유지. 2026년 매출(12.7조원)은 역대 최고, 영업이익(1.41조원)은 2022년 이후에 최고를 예상

(단위: 십억원, %)

구분	1Q25	4Q25	1Q26(F)					2Q26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739	2,902	3,051	3,058	11.7	5.4	3,073	3,074	10.4	0.5
영업이익	201	239	290	271	35.3	13.3	280	352	65.4	29.9
순이익	134	223	239	224	67.5	0.5	220	284	119.1	26.9

자료: 삼성전기,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0,294	11,314	12,712	13,802	14,219
영업이익	735	913	1,411	1,664	1,715
세전순이익	797	896	1,407	1,614	1,670
총당기순이익	703	731	1,154	1,324	1,370
지배지분순이익	679	706	1,131	1,297	1,342
EPS	8,752	9,099	14,569	16,714	17,298
PER	14.1	28.0	29.3	25.6	24.7
BPS	113,261	122,960	137,940	155,544	174,295
PBR	1.1	2.1	3.3	3.0	2.7
ROE	8.2	7.7	11.2	11.4	10.5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삼성전기,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기업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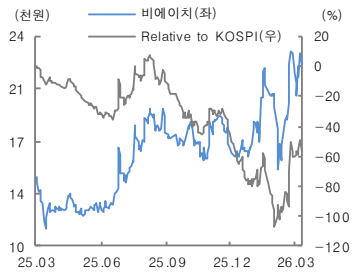
비에이치 (09046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서지원RA jwon0.seo@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5,000 유지
현재주가 (26.04.06)	22,20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5450.33
시가총액	74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2%
자본금(보통주)	1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3,000원 / 11,16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83억원
외국인지분율	21.07%
주요주주	이경환 외 6 인 21.85% 국민연금공단 7.4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1.8	37.3	29.1	72.9
상대수익률	35.0	14.0	-16.0	-21.8



폴더블폰, 피지컬AI !

- 애플의 폴더블폰 출시 예정, 신규 매출 추가로 최고 실적 예상
- 신성장으로 휴머노이드 및 로봇 분야에 진출, 글로벌 협력 강화
- 최고의 실적 및 신성장 모멘텀 추가 = 밸류에이션 재평가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35,000원 유지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35,000원을 유지. 2026년 애플의 신규 모델인 폴더블폰 출시로 수혜, 최고 실적을 예상. 폴드(좌우 펼침) 형태의 폴더블폰은 기존의 바(Bar)타입(프로/프로맥스등)보다 2개의 디스플레이를 채택하므로 첫 해의 폴더블폰 판매량(약 650만대)보다 2배 많은 1,500만대를 생산할 것으로 추정. 기존의 공급가격보다 약 60~70% 높아지면서 2026년 하반기에 역대 최고의 실적이 예상. 또한 애플이 2026년 하반기 출시 전략(프리미엄 모델만 출시)을 반영하면 집중적인 생산(높은 가동률)과 안정적인 수율 확보가 용이하다고 판단. 추가적인 이익 상향도 상존

2026년 피지컬 AI 사업 추진

2026년 최고 실적을 예상한 가운데 밸류에이션의 재평가도 동시에 진행 전망. 2027년 휴머노이드 관련한 R/F PCB를 공급,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 우선적으로 휴머노이드 및 로봇 관련한 충전기 사업에 진출, 2027년 매출예상. 휴머노이드에 칩과 다른 영역을 연결, 데이터 전송 역할을 담당한 R/F PCB 사업을 추진. 경성(R)과 연성(F)을 동시에 영위, 글로벌 휴머노이드 업체에게 협력의 대상으로 부각

(단위: 십억원, %)

구분	1Q25	4Q25	1Q26(F)					2Q26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332	508	368	368	10.8	-27.5	369	411	5.4	11.6
영업이익	-25	29	7	7	흑전	-75.3	6	14	-12.1	98.1
순이익	-28	25	7	7	흑전	-72.5	5	12	452.8	68.8

자료: 비에이치,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배,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754	1,793	2,076	2,193	2,292
영업이익	87	54	121	132	134
세전순이익	105	56	123	133	136
총당기순이익	78	46	96	104	106
지배지분순이익	67	37	99	107	106
EPS	1,945	1,077	2,938	3,178	3,156
PER	8.9	14.9	7.5	7.0	7.0
BPS	20,748	21,742	24,811	27,776	30,719
PBR	0.8	0.7	0.9	0.8	0.7
ROE	9.9	5.1	12.5	12.1	10.8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비에이치,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Result Comment(잠정실적)

LG전자 (06657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서지원RA
jiwon0.seo@daishin.cor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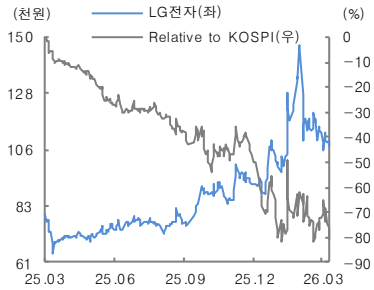
6개월 목표주가 160,000
유지

현재주가 107,100
(26.04.07)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5494.78
시가총액	18,28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55%
자본금(보통주)	81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46,700원 / 64,7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344억원
외국인지분율	33.41%
주요주주	LG 외 2 인 35.27% 국민연금공단 6.5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9.2	16.0	40.2	57.3
상대수익률	-7.7	-3.9	-9.5	-33.4



1Q 예상 상회! 달라진 체력을 확인!!

- 1Q26 영업이익은 1.67조원(33% yoy)으로 컨센서스대비 21% 증가
- MS 및 VS 부문에서 수익성 확대, 고부가 중심의 매출 확대
- 밸류에이션의 저평가 지속, 로봇과 AI향 공조 사업 확대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160,000원 유지

2026년 1Q 영업이익은 1.67조원(32.9% yoy/흑전 qoq)으로 종전 추정(1.61조원), 컨센서스(1.38조원)을 각각 3.7%, 21%씩 상회, 예상 상회한 호실적으로 평가. 매출은 23.73조원(4.4% yoy/-0.5% qoq)으로 컨센서스(23.3조원)을 소폭 상회. 별도 기준의 LG전자만의 영업이익은 1.38조원으로 22.1%(yoy) 증가 등 대외적인 불확실한 환경에 선제적인 대응, 비용의 최소화 노력의 결과로 예상을 상회. 연결 대상 LG이노텍의 실적 호조로 추가적인 이익 확대. 투자의견은 매수(BUIY) 및 목표주가 160,000원(2026년 주당순자산(BPS) X 목표 P/B 1.2배(성장기 평균)) 유지. 투자포인트는

1Q26 영업이익은 1.67조원으로 32.9%(yoy) 증가, 예상 상회

2026년 1Q에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였던 MS(TV 등) 부문의 영업이익이 흑자전환(yoy/qoq), 영업이익률 확대(7.8%)로 전체 수익성을 견인. 2025년 인력효율화(희망퇴직 등) 진행, 저수익 제품의 축소로 고정비용이 감소. 2026년 1Q에 동계올림픽 개최로 프리미엄 TV(OLED TV) 판매 증가, 국내에서 프리미엄 노트북에서 판가 인상, 추가적인 이익 개선 분석. HS 부문은 프리미엄 매출 확대 및 VS 부문은 수익성 중심의 수주 확보가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유지. 다만 ES 부문은 중동전쟁으로 일시적인 물류비용의 증가, 수요 둔화로 기존 추정대비 하회 추정

2026년 2Q, HS 및 MS 중심의 수익성 개선은 유효. 2026년 수량 증가보다 프리미엄 비중 확대, 비용 절감(원가개선 및 고정비 축소) 효과가 반영 분석. 계열사 LG이노텍(영업이익)과 LGD스플레이(지분법)의 실적 호조로 1Q 및 2026년 실적 개선 전망 유지

(단위: 십억원, %)

구분	1Q25	4Q25	1Q26					2Q26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2,740	23,852	23,444	23,733	4.4	-0.5	23,318	23,216	12.0	-2.2
영업이익	1,259	-109	1,612	1,674	32.9	흑전	1,382	1,094	71.1	-34.6

자료: LG전자,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87,728	89,201	95,641	99,907	105,044
영업이익	3,420	2,478	4,159	4,172	4,239
세전순이익	1,336	1,836	3,921	4,068	4,172
총당기순이익	591	1,220	2,745	2,848	2,920
지배지분순이익	368	961	2,361	2,449	2,512
EPS	2,032	5,321	13,110	13,600	13,948
PER	41.1	17.3	8.3	8.0	7.8
BPS	116,100	132,331	144,551	156,941	169,679
PBR	0.7	0.7	0.7	0.7	0.6
ROE	1.8	4.3	9.5	9.0	8.5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LG전자,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Results Comment(잠정실적)

삼성전자 (005930)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서지원RA
jiwon0.seo@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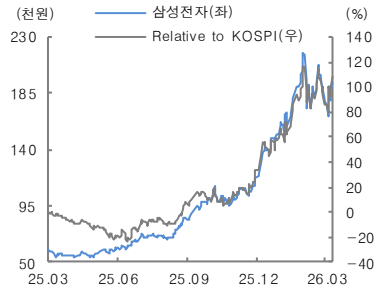
6개월 목표주가 270,000
유지

현재주가 193,100
(26.04.06)

반도체업종

KOSPI	5450.33
시가총액	1,248,424십억원
시가총액비중	37.54%
자본금(보통주)	77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18,000원 / 53,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9,408억원
외국인지분율	48.44%
주요주주	삼성생명보험 외 15 인 19.64% 국민연금공단 7.7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6	39.0	117.0	244.2
상대수익률	5.1	15.4	41.3	55.7



Memory Giant

- 1Q26 영업이익은 57.2조원으로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
- 시장은 삼성전자의 폭발적 이익 성장을 지속 체감하게 될 것.
- 메모리반도체 초호황에 대한 재평가 필요. 적극적 매수 전략 유효.

투자전략: 이 정도로 놀라긴 이르다

목표주가 270,000원과 매수의견 유지. 시장은 삼성전자의 폭발적 이익 성장을 지속 체감하게 될 것이고, 메모리반도체 초호황의 가치를 재평가할 것.

– 2Q26의 경우, 모바일향 메모리반도체에서의 서프라이즈를 기대. 대형 모바일 거래선들의 무차별적 가격 수용 속, 연쇄적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 경쟁사 대비 모바일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 유리한 변화.

– HBM과 같은 고부가 메모리반도체에서의 경쟁력 상승, 비메모리반도체의 적자 축소 등이 이익의 상승 탄력성을 드높일 것.

1Q26 Review: 삼성의 저력

1Q26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33조원 (q-q +42%, y-y +68%), 57.2조원 (OPM +43.0%)으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 메모리반도체 초호황을 실적으로 입증. AI 추론 확장과 제한적 공급 성장이 견인한 극단적 수급 불균형이 가격 급등을 유발 (1Q26 ASP: DRAM q-q +92%, NAND q-q +87%).

1) 부문별 영업이익: DS 사업부문 53.0조 (메모리반도체 54.5조원, 비메모리반도체 -1.5조원), MX 사업부문 3.4조원, SDC 0.3조원, CE/VD 사업부문 0.2조원, Harman 0.3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2) 메모리반도체 가격: 서버 뿐 아니라 모바일향 ASP도 급등한 것으로 추정. 대형 모바일 거래선들이 전분기 대비 약 2배의 가격 인상을 수용한 결과. 삼성전자의 오랜 관록이 기대치를 상회하는 가격 상승률을 이끌었다는 판단.

3) 비메모리반도체: 계절성으로 1.5조원 내외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 파운드리 가동률 개선 효과를 감안 시, 분기 적자 축소 기조 지속될 것. 선단공정과 성숙 공정 전반에서 가동률 회복 시그널이 목격되고 있으며, 파운드리 사업부문만 놓고 보면, 4Q26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

4) MX 사업부문: 스마트폰 출하량의 경우, 5,900만 대를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 플래그십 신제품 판가 인상 및 제품 믹스 개선 효과 등을 기반으로 수익성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 (1Q26 MX 사업부문 영업이익: 3.4조원).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3A	2024A	2025A	2026F	2027F
매출액	258,935	300,871	333,606	637,423	734,669
영업이익	6,567	32,726	43,601	306,645	335,252
세전순이익	11,006	37,530	49,481	315,158	347,527
총당기순이익	15,487	34,451	45,207	236,369	253,695
지배지분순이익	14,473	33,621	44,261	235,439	252,793
EPS	2,131	4,950	6,564	34,954	37,531
PER	36.8	10.7	18.3	5.4	5.0
BPS	52,002	57,663	62,922	97,354	126,393
PBR	1.5	0.9	3.1	2.0	1.5
ROE	4.1	9.0	10.8	43.6	33.5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삼성전자,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